

- ② 민우 캘린더
- ④ 이소진 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 69시간 노동제와 재생산노동의 모순
- ⑥ 박이윤정 기후위기 시대, 기후의 감각이 달라지는 세대
- ⑧ 도담(김은지) 기억을 걷는 시간
- ⑩ 열 일 년이라는 많은 시간
- ⑫ 리오 우당탕탕 민우회
- ⑭ 헝크 일터의 여성들아, 광장에 모여볼까? 세상이 후퇴해도 우리는 앞으로
- ⑮ 해파리 삶의 굴레(?) 속 기후위기의 무게
- ⑯ 영지 미디어 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고민했던 건에 관하여
- ⑰ 최원진 강간이지만 강간이 아니다? 폭행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강간죄를 묻다.

- ⑱ 은단 UP&DOWN 요동치는 나라, 우리는 새 판을 기획하지!
- ⑳ 파인 이것은 바다 프로젝트에 대해 써달라 했지만 몸에 대한 파인의 이야기 / 수탈 어린시절의 수탈을 떠올리며 작성하는 나의 페미니스트 모먼트 / 페미PICK
- ㉑ 반산 페미를 가지가지하네 / 발랄 소모임 리포트
- ㉒ 설이 하늘을 담은 하늘을 담은 성폭력피해여성 심터 이야기
- ㉓ 지부소식/민우알림

함께가는 여성

23 05 20 [행사] 성평등 세상을 여는 바자회

워라산
하는 페미니스트
클럽

함께

23 03 09 [회원] 다짜고짜 민우클럽-민우회원 안부전화 이벤트

3개에 5천원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리포트

23 04 10

23 01 28 [제 36차 정기 총회] 열아라! 뒤집어라!

[여성노동자대회] 세상이 후퇴해도 우리는 앞으로

23 03 04



이것저것 규탄한다!

01

[기자회견] 결림들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23 05 16



23 04 26

[라운드테이블] <나는 신이다>는 다르지 않았다


335

난세에 저항하는 페미니스트가 500명 더 늘어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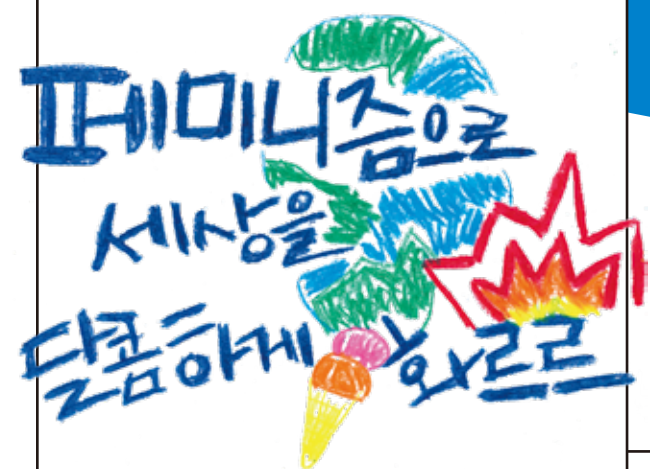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함께가는 여성> 편집팀입니다!

여러분,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바로바로...3,761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약 5,156만 명인데 그 중 민우회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0.007%인 셈이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적어 보일까 싶기도 한데요, 민우회는 일당백 회원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딘가에 숨어있는(?) 예비 회원 분도 계시겠죠? 주변 어딘가에 후원할 곳을 찾고 있는 사람, 페미니스트를 만나고 싶지만 어디서 만나야 할지 모르는 사람,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혹시 이 글을 읽으며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한국여성민우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말이야" 말을 건네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QR코드 이미지를 슬쩍!



민우회는 연결되고 함께 기낼 수 있는 페미니스트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으로+, 세상을 달콤하게 화르르!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멋진 소식지로 함께해요! 235호 [각기 다른 모양과 속도로 흐르는]을 읽고 의견 남기고 싶은 분들은 QR코드로 접속하여 구독설문을 남겨주세요.



발행처 한국여성민우회
 발행인 최진철, 최희연
 편집인 김희영
 발행일 2023년 6월 29일
 총리 235호
 편집위원 박지선 신혜정 채운진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 나무 3층
 전화 02-737-5763 (팩스) 02-736-5766
 이메일 minwoo@womenink.or.kr
 디자인 오솔희동경
 사용 서체 [한글] 지백, 노말비만, 동렬산스, 필국할때 김영문체, 필국할때 이원순체, 필국할때 이종희체, 필국할때 주유물체, [라틴] Pantasio, Terminal Grotesque, Gerardo Velázquez

※ 민우회 소식지에 활용하는 서체는 다음 3가지 기준을 참고하여 선정합니다. ① 사회 운동의 중요한 순간을 가리는 서체 ② 여성, 취약, 유색인종 등 그간 디자인계에서 과소대표된 공동체에 속한 디자이너의 서체 ③ (공동체로서의) 오픈소스 서체

※ 이번호에 쓰인 필국할때 서체는 필국군 한글문화고실에서 일출이 넘어 처음 한글을 배운 다섯 명의 글씨체를 디지털화 한 서체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담긴 손글씨가 이번호 주제인 [각기 다른 모양과 속도로 흐르는]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1 [상명서] 당신의 죄는 잊힐 수 없다. 고은 복귀사태에 부처

02 [김규관성명] 노동자의 공식조직인 민주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규탄한다

03 [여가부폐지저지 전국행동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업무 축소 없다'고 거짓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04 [공통성명]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간격의 이행하라

05 [제 36차 정기총회] 열아라 뒤집어라

06 [연대]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주모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07 [기자회견]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08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 당연하다.

09 [공통성명]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정에 대한 약칙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10 [추모제 멈추지 않을 꿈, 우리가 이어갈 용기 변화수 히사 2주기

11 [기자회견] 급속노동자 공안탄압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2 [여성노동자대회] 세상이 후회해도 우리는 앞으로

13 [38 여성대회]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낫는 거센 연대의 파도

14 [연대] 여성여대 청소년노동자들의 38여성 파업을 지지합니다

15 [공통성명] 차별적 이종구조를 고착하는 주당 69시간 개악안을 철회하라

16 [연대] 한국여성민우회 주관, 제1587차 수요시위

17 [카드뉴스]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문제 인증차별, 또 다른 여성노동자 착취로 해결할 수 없다

18 [공통 기자회견] 현대차는 재용부터 퇴직까지 성평등한 노동공간 보장하라

19 [지지 성명] 성별임금격차 해소,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로부터 시작하라

20 [공통 논평] '살만하지 않은 사회' 만드는 저출산 정책 전면 철회하라

21 [공통성명] 법무부는 성범죄 무고수사 골을 맡고, 성폭력 수사부터 제대로

22 [공통행동]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23 [카드뉴스]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입면다운 리포트 1편

24 [공통성명] 전라북도의회는 제대로 된 인권보장제도 마련에 나서라!

25 [공통성명] 이재명 대표, 차별금지법 제정은 당신의 역할과 책임이다.

26 [연대] 기후정의파업, 함께 살기위해 열하!

27 [공통입장문]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반대하는 여성 시민단체

28 [카드뉴스]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입면다운 리포트 2편

29 [라운드테이블] <나는 신이다>는 다르지 않았다

30 [토크쇼] [토크쇼]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입면다운 토크쇼 (feat.정희진)

31 [지역활동] 민우회 분지부 전체활동가 대회

32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젠더 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33 [공통입장문]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B대장의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입장

34 [행사] 성평등 세상을 여는 바자회

35 [공통논평] 가족구성권 3명 발의를 환영하며

시간 時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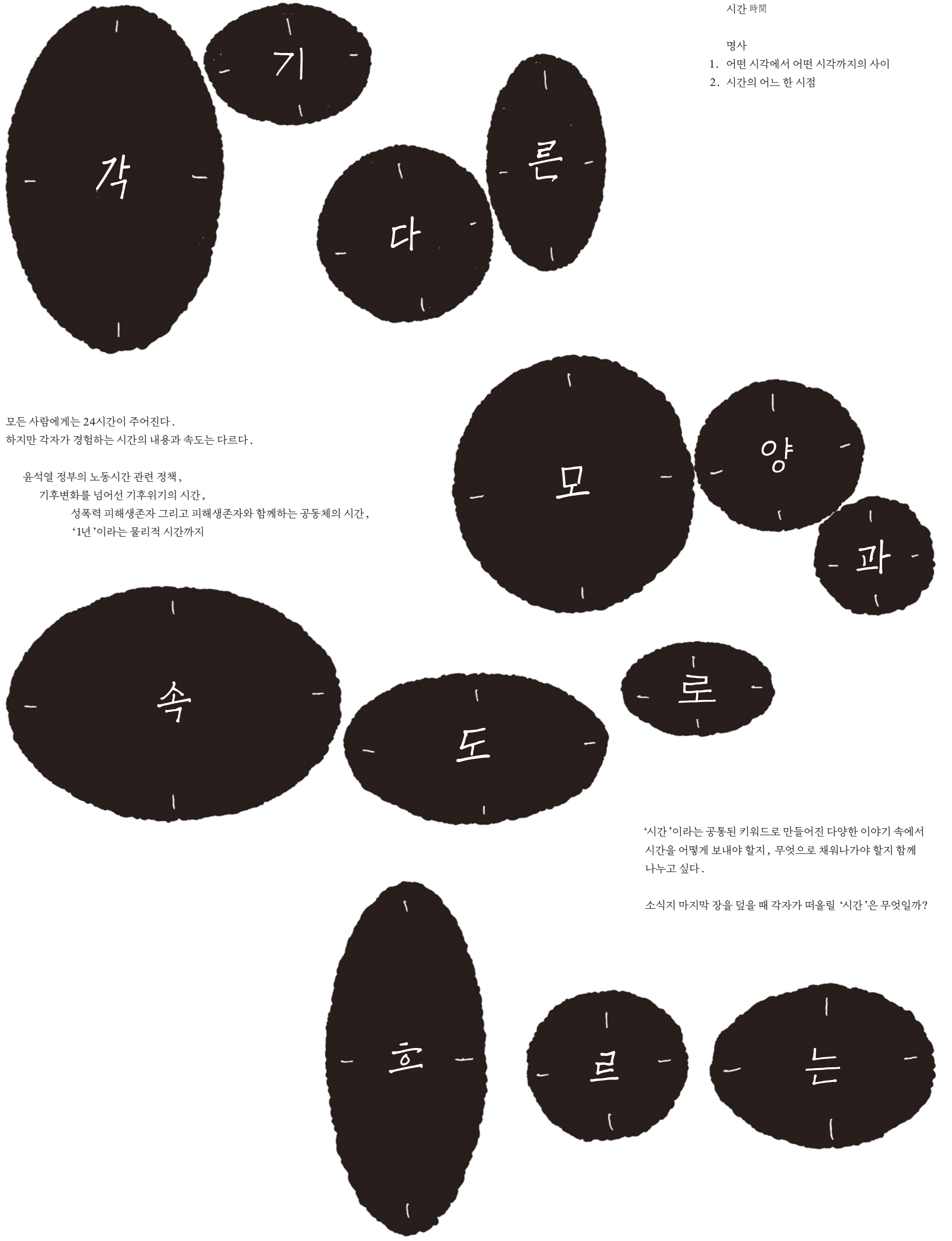
명사
 1.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2. 시간의 어느 한 시점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각자가 경험하는 시간의 내용과 속도는 다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관련 정책,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의 시간,
 성폭력 피해생존자 그리고 피해생존자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시간,
 '1년'이라는 물리적 시간까지

'시간'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로 만들어진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 싶다.

소식지 마지막 장을 덮을 때 각자가 떠올릴 '시간'은 무엇일까?



나는 낮은 출산율을 특정한 사회적 문제로 발화하는 지금의 논의들에 동의하지 않지만, 본 글은 정치적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69시간제도를 정부에서 그렇게도 해결하고 싶어하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교차해보고자 한다. 이는 재생산노동에 대한 의도적 무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윤석열정부의 69시간제 노동이기 때문이다.

이소진 ●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 <시간을 빼앗긴 여자들> 저자.
페미니스트 노동연구자이자 사회주의자.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이화여대 여성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연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시간을 빼앗긴 여자들』과 『경험이 언어가 될 때』가 있다.

여성을 위한 나라라는 없다: 69시간 노동제와 재생산노동의 모순

많은 페미니스트 정치경제학자들이 지적했듯, 자본주의는 재생산노동을 사랑의 노동으로 둔갑시켜 (자본주의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므로서 축적의 구조를 형성해 왔다. ■ 임금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회복하게 하는 노동이 필요하고, 이들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녀출산과 돌봄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의 존재를 비가시화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노동력에 무임승차해왔던 것이다. 맘스가 일찍이 지적했듯,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재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여기에는 여성의 재생산노동에 대한 임금이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 최근 한국에서도 평등에 대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수사의 도움과 더불어 이윤추적의 한계에 부딪힌 자본이 사회보호시스템을 철회하기 시작하면서 맞벌이가 표준이 되어 왔다. 물론 일부노동자들이 가족임금을 지급받던 그 짧은 시기에도 다수의 여성들은 재생산노동과 임금노동의 굴레 속에서 고된 노동을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당시의 표준은 어쨌거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은 (실제로 그러하냐와 관계없이) 보충적인 것으로 의미화되어왔기 때문에 여성들의 기점은 언제나 ‘가정’이어야 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양상이 사뭇 달라져서, 특히 젊은 여성들은 재생산노동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 특히 출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결혼 거부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점은 서구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다. 이미 서구국가에서는 출산과 결혼 사이의 연관관계가 희미해져, 결혼제도 바깥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비혼인 관계에서의 출산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많은 임신한 여성은 결국 결혼제도로 편입된다. 이는 아직까지 결혼과 출산이 제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측컨대 많은 비출산여성들은 결혼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들은 결혼을 하는 순간 남편과 자신의 의사결정권이 동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많은 결정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될 것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이 결혼조차도 기피하게 된 것이다. 지극히 현명한 판단이다. ¶ 사실 재생산노동에 대한 강한 거부는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시간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다. 가사 및 양육노동에 대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재생산노동을 오롯이 담당하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남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남성들이 여전히 가부장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재생산노동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평생 동안 임금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을 자아실현으로 의미화 해 온 많은 여성들에게 이는 사랑의 노동이 아닌 ‘독박’으로, 즉 개인시간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육까지 추가되면 더욱 더 이들은 시간의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 ¶ 실제로 윤석열정부가 제안한 69시간제도가 시행된다 하였을 때, 많은 여성들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낮은 수준의 통제권조차 빼앗기게 될 확률이 높다. (고용주가 원하는) 특정 기간동안의 장시간 노동은 돌봄노동의 특성을 간단히 무시한다. 돌봄노동은 임금노동과 마찬가지로 집약적 노동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돌봄노동은 심과 노동의 구분이 없는 지속성만을 가진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돌봄노동을 구매할 수 없는 여성들은 임금노동을 수행할 수 없다. 타인의 돌봄노동을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돌봄 노동자가 자신의 변동적 노동시간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과 돌봄이라는 극단적 선택지 속에서 이 여성들은 일과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분리 안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 정부는 69시간 노동제도를 ‘유연함’으로 포장하여 마치 노동자가 자신의 시간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왔듯, 사실상 이 유연한 노동에 대한 권리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 즉 고용주에게 있을 때 노동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지켜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기르는 여성들은 통제권을 더욱 더 발휘하기 어렵다. 회사가 언제 자신을 호출할지 모르는 노동현장과 언제나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돌봄노동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몰아서 일을 처리하고 몰아서 휴식하는 제도보다는 정해진 시간을 규칙적으로 일하는 것이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된다. 사실상 재생산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몰아서 휴식하기’는 ‘휴식’이 아닌 ‘재생산 노동을 위한 시간’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더욱 이 선택지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69시간제도는 시간주권을 노동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시간주권을 노동자에게서 빼앗는 정책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시간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재생산노동을 위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재생산노동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여 임금노동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아이가 있든, 아이가 없든 문제는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가 혼자 살든, 누구와 함께 살든, 재생산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가사노동이나 돌봄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 노동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재생산노동을 스스로 경감시키고, 재생산노동을 경감시키기 위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재생산노동을 대리로 행해줄 사람을 구매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거론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시장에 가기 힘들어 쿠팡에서 손가락 클릭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 강아지와 산책을 하는 것이 힘들어 대신 강아지를 위한 장난감과 간식을 구매하는 것, 남들이 만들어 놓은 반찬과 레토르트 밥을 구매하는 것, 스스로 빨래를 하는 대신 세탁업체와 계약하여 빨래를 맡기는 것, 집을 청소해줄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 등 이 모든 행위는 우리가 피로해서 우리 스스로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이다. ¶ 따라서 우리가 이미 임금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재생산노동을 외주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69시간제가 도입된다면 특히 여성들은 시간주권 박탈의 결과 최소한의 시간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생산을 (더 심각하게) 포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온전히 주어진 선택지만 자신의 몸 뿐이다. 시간주권이 노동일(day)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삶 전체를 관통하는 주권적 개념임을 상기해볼 때, 나의 장기적 미래를 위해서 아이를 기르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다. 게다가 내가 낳을 생명이 살아가게될 세상을 고려해봤을 때에도 낳지 않는 것이 그 생명을 위한 선택일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69시간제인가? 당연히 우리는 아니다. 그렇다.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이다.

역사 속을 살아가는 인간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은 모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도 모두 역사 속의 인물이었다. 정치인들은 내 삶과 연결되어 있기보다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내가 모르는 이 세계 어느 곳에 존재하는 먼 타자일 뿐이었다. 초등학교에서 국가에 대한 맹세를 할 때, 나는 국가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 마냥 나와 가족의 안녕을 빌었다. 뉴스 속 불타는 송래문을 볼 땐 엄청난 것이 불타고 있다는 것만 어른들의 숨과 표정으로 느낄 뿐이었다. 정치도 잘 몰라서 미국이 4년 중임제라길래 한국도 그렇다고 언니와 내기하기도 했다. 나이를 먹으면서 강산이 변하는 10년마다 2명의 대통령을 만나는 걸 알게 됐다. 신중플루로 초등학교 수학여행을 가지 못할 때,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대통령이 바뀌었다. 수입산 쇠고기 파동도 지나가고,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가 확정됐다. 초등학교에 붙어있던 “2014년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는 포스터를 보고 2014년이 언제 오나 싶었지만, 시간은 정박의 메트로놈 따라 흘렀다. 박근혜가 당선되고 다음 해 바뀐 도로명에 적응할 때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뉴스에서 고등학교 교실 매 쉬는 시간 TV를 틀어 생존자를 확인 할 때, 어른들은 나의 수학여행은 안전을 이유로 취소했다. 대학을 위해 서울에 상경하고서 뉴스 앵커 뒤에 나오던 광화문과 송래문의 동떨어진 사진이 머릿속에 지도로 이어졌다. 남산 아래에서 살고 나서야 송래문이 불타올 때 시민들의 마음이 상상이 됐다. 휘경동이 배경인 소설과 신촌이 배경인 소설이 왜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해야만 했는지도 이해하게 됐다. 그렇게 흩어져 있던 국가의 상징 장소들이 머릿속 지도로 모아졌다. 교환학생을 가서도 한국의 역사는 쌓였다. 팟캐스트 속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이 뉴스 특집 편성으로 흘러나왔다. 그런 시간 속에서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회미해진 기억 속에서 내가 몇 살이었는데 지 떠올리는 힌트는 그런 뉴스와 정책 속에 있었다. 내 시간을 씨실로, 역사를 날실로 이 시대를 기억하고 있었다. 서울광장 열 서울신문의 전광판에 뜨는 속보를 보는 일은, 역사를 내 시간 속에 새기는 일이었다. 그렇게 한 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하고 있다는 감각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기후의 감각이 달라지는 시대

달라지는

함께가는 여성

디스토피아를 자기 삶의 첫 단추로 기억할 청소년 세대
헌남노가 휩쓴 2022년, 난 청소년들과 업사이클링 수업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을 처음 만나기 위해 달렸던 OT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선제공격했다는 뉴스가 떴다. 이어서 기상이변으로 겨울철 가뭄이 극심해져 산불이 일어난다는 뉴스가 매일 단신으로 지나갔다. 그 순간 코로나 19 뉴스 특보 로고가 보였다. 코로나19 방역 1년만에 “뉴스 특보=매일 하는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뉴스”로 해석하고 있던 나를 발견했다. ‘비정상’의 나날들이 일상이 되어있었다.

한국뿐 아니라 매년 전 세계에서 기록적인 산불, 폭염, 폭우, 폭설, 혹한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이 뉴스에 한 줄 헤드라인으로 넘어가는 세계였다.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과학자들의 경고들이 켜켜이 쌓여, 뉴스가 두 시간이어도 모자랄 것 같은 하루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내가 보고있는 뉴스를 편집하기만 해도 디스토피아 영화 도입부를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 확진자를 차별하고, 외국에서는 아시아인 혐오가 심해졌다는 심층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취약계층들이 무료 점심식사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도 허탕을 치는 일이 허다했고, 한국에서만 비대면과 위생이라는 명목하에 배달용기는 하루 700만 개, 컵 얼음은 하루 100만 개 넘게 사용됐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63빌딩 7층 분량의 비닐장갑이 투표장에서 사용된 것이 전염병 시대의 투표 모범 사례로 전 세계에 소개됐다. 전쟁 때문에 자원이 부족해져 가스비 폭등으로 옷을 겹겹이 껴입는 겨울도 지났다. 이런 극적인 나날들이, 디스토피아의 시대가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자신들이 기억하기 시작하는 세계의 첫 조각이었다.

기후위기가 평범한 일상이 될 시대

마스크를 매일 써야만 했던 ‘비정상’의 시대가 자연스러웠던 아동들은 마스크를 벗기 싫어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아마 태풍 매미가 나에게 보편적인 기준이었던 것처럼, 새로운 세대에게는 코로나19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 가난한 자들이 쉽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폭우에 갈혀 죽는 것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라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뉴스에서 뽀은 특보가 그지 일어날 수 있는 일상처럼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의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기준은 자신에게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청소년과 다음 세대가 사용할 ‘예년의 날씨’라는 표현은 우리와 다를 것이다.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것이 더 이상 큰 이슈가 아닌 시대, 감염병이 오면 또 마스크를 쓰고 항생제를 쓰며 넘어갈 시대. 폭우와 태풍에도 놀라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시대. 큰 재난의 신호를 더 이상 위협하다고 감지하지 못할 세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는 이미 벌어진 일이다. 나의 세대는 초등학교 때는 신중플루, 고등학교 때는 세월호 참사, 대학교 때는 코로나가 있었다. 그 사이에 후쿠시마 핵사고도 있었지만, 우리는 핵인사, 핵노딜과 같은 말처럼 핵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설악산 자락 아래에서 도화꽃이 몇 십 번을 피는 걸 보며 살아간 사람과, 가끔 쓰카를 빌려 설악산 풍경이 담긴 인스타그램 핫플레이스 카페에서 자연을 보며 느끼는 아름다움의 결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아마 후자의 사람들이 전자의 사람들보다 이 시대를 조금 더 오래 살아있을 것이다. 그들이 역사 시간 축의 중심을 꿰고 있을 때, 그들이 전하는 자연의 보편은 아마 이전 세대의 모습과는 다를 테다.

짧은 나의 시간 이후에도 길게 역사가 이어질 수 있을까?

만년설이 쌓인 산을 가본 적 있다. 마치 어느 여행 사이트에 있는 사진처럼 풍경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 하나의 풍경으로 나는 세계 모든 곳을 찍어낸 사람들의 수많은 사진을 떠올렸다. 인류가 만들어 낼 수도 없는 그 장엄한 시간 속의 자연들을 말이다. 우리가 본 그 여행 사이트 속에 있는 풍경은 AI가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곳이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인류는 AI를 만들지만, 만년설은 없애고 있다. 얼음 속에 파묻혀 있는 5만 년 전의 공기 방울들과 탄소들을 공기 중에 내보내고 있다. 인간은 겨우 100년을 산다. 우리는 인류가 만들어 낸 인공물에는 주목하면서, 인류가 없애고 있는 자연물은 자꾸 있다. 인류는 겨우 100년으로는 감히 되살릴 수도 없는 시간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도달 할 수 없는 그 역겹의 과거들과 미래들을 저꾸 연결해보려 애쓴다. 나의 삶이 더 이상 씨실을 만들어 내지 못해도, 누군가는 이 지구에 다시 태어나 내가 닿지 못한 역사의 날실 속에 자신의 씨실을 엮고 있을 테다. 그렇게 내가 닿지 못한 앞으로의 시간을 상상해 본다.

기후 위기 시대



플란드 지코퍼타에서 촬영가 박이윤 정 사진 ©2020 박이윤정 all rights reserved

참고문헌
편의점 컵얼음, 하루 100만개 넘게 팔려...연대 최다(2021, 한겨레)
배달쓰레기 '하루 700만개' 시대, '착한포장용기' 찾는 착한 소비자 늘어(2021, 뉴스 1)

“잘 지내고 있어요. 연락할게요!”

문 앞에 서서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문이 닫히고 뒤돌아 선 등이 코너를 돌아 보이지 않을 때쯤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이 무너 지듯 쏟아져 내렸다. 내가 담당하던 다솜인을 처음 정신과병원에 입원시켰던 날이었다. 다솜인을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명확했다. 반복적인 자해. 당직 활동가들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다솜인¹을 지켜보며 자해를 하지 못하도록 온 몸으로 막아냈다. 때때로 병원 응급실에 가기도 했다. 나는 당직을 하지 않는 날에도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오늘은 제발 당직자에게 아무 연락도 안 왔으면’ 하는 생각들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혹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다솜인은 우리가 과거라 부르는, 이미 흘러가버렸다고 생각하는 시간 속으로 다시, 다시 또 다시 되돌아가 피해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담(김은지) ● 광주여성인우회 다솜누리
은은하게 미지근하게 오래 가고 싶은

성폭력피해자, 경험자, 생존자 그 어디쯤

“여기 있으면 제가 계속 성폭력피해자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다른 다솜인의 퇴소사유였다. 생활규칙 위반이 잦기는 했지만² 사실 아직은 지원을 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고, 최대한 쉼터에서 더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득을 해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쉼터에서 퇴소하고 싶은 이유가 본인이 성폭력피해자임을 계속해서 떠올려야 하는 것이라니. 설득할 수 없다기보다는 설득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쉼터 활동가로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말이었다. 반성폭력운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어왔다. 여성의 경조를 지켜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성폭력피해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에서부터 피해자를 타자화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성폭력피해생존자, 그리고 이제는 성폭력피해경험자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어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다솜인이 나에게 던졌던 말은 성폭력피해, 경험, 생존이라고 하는 용어들 사이, 그 어디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다솜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폭력피해와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찰나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성폭력이라 정의내린 피해들이 발생하기 전, 발생한 상황, 발생한 이후, 그리고 내가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말한 이후의 상황들까지 모두 연속적으로 존재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피해자에게 지원을 하면 자연스레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한다. 더 나아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각자에게 다를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의 것과는 다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의 경험은 단순히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 쉼터 거실에 모여 앉아 별 것 아닌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웃기도 하고, 맛있는 것들을 먹으며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며 가끔은 쉼터 밖으로 나가 환기를 시키기도 한다. 그러다 가끔 TV에서 나오는 성폭력피해 관련 뉴스나 영화에 몸이 얼어붙기도 하고, 경찰서·검찰청·법원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돌아올 때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가족과의 만남 이후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며 흔들리기도 한다. 성폭력피해자에게 “언제까지 이럴 것인지”,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닌지”, “이제 극복해야지” 따위의 얘기를 하며 상처 주는 상황들을 종종 마주한다. 이것은 성폭력피해경험이라는 것이 과거의 어떤 순간에 일어난 것이고 성폭력피해자는 현재를 살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는 이따금씩 과거의 자신과 마주치기도 하고 과거의 자신과 얽혀 있는 현재의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하며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느끼기도 한다. 시간순서에 따른 당연한 흐름은 사실 없는 것일지 모른다.

지치고 힘들 때 네 곁에 서 있을게

쉼터를 퇴소하는 사유는 다양하다. 입소기간이 끝나서 자연스럽게 자립하기도 하고, 생활규칙을 위반해서 다른 쉼터로 옮겨가거나 독립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퇴소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사유로 퇴소를 하게 되면 끝에는 “잘 살아요” 라는 인사가 따라 붙는다.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지낼 때는 아무리 지치고 부양된 순간이 있었더라도 진심으로 다솜누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잘 살기를 바란다. 다솜누리에 입소하는 다솜인은 대부분 친족성폭력피해자다. 가족에게 보호와 지지를 받는 다솜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다솜인도 있다. 성폭력에 대한 방관, 동조, 비난은 성폭력피해를 치유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 이는 친족성폭력피해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성폭력피해만이 문제가 아니다. 다솜인이 피해 이전에 살고 있던 세상은 이미 신뢰할 수 없는 안전하지 못한 곳이었을 수 있다. 가족과 사회가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끔 퇴소한 다솜인들에게 연락이 온다. “오늘 일이 힘들었다”, “아프다”, “승진을 하게 됐다”, “고양이를 입양하게 됐다” 등등 소소한 일상부터 다솜누리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됐든 다솜누리를 떠올렸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힘들 때 비빌 언덕은 필요하다. 가족, 친구, 애인, 선후배, 동료 등등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말한 다솜인이 있었다. 이런 곳? 그 다솜인에게 ‘이런 곳’은 무엇이었을까? 치유에는 시간이 든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에서 벗어나 페미니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 피해로 인해 깨져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³ 한다.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을 변화시키고, 다른 문제해결지도를 그려야 한다. 새로운 관계맺기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피해 당사자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피해경험 재해석, 신뢰회복, 자기방어, 문제해결방식 변화, 새로운 관계맺기는 당사자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다솜누리는 일상 속에서 다솜인들이 자신의 의사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이를 존중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며, 회피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고 이를 침범했을 때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감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충분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쉽지 않다. 지칠 때도 많고 지난한 과정을 견뎌야 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피해자가 고립되지 않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곁에 함께할 누군가가 있는 것이다. 거창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급하게 입소하느라 아무런 짐을 챙겨오지 못한 다솜인을 위해 자신의 옷, 신발, 가방을 챙겨준 회원들, 직접 가져다줄 수 없어서 대신 보낸다며 후원금을 보내준 회원들, 다솜인들 먹으라고 쌀, 김치, 과일 등을 보내는 회원들, 자립하는 다솜인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히 챙겨준 재능기부센터 선생님들이 있다. 오롯이 홀로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해서 전달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역할이 아닐까.

¹ 입소자, 생활인 대신 '다솜인'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에는 다솜인들이 다솜누리(성폭력피해지원터)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자, 공동체를 주체적으로 함께 꾸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² 다솜누리는 여러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합의된 약속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솜누리는 월 2회 다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 전 미리 제출한 안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며, 이전 회의에서 합의했던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재논의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솜인들은 서로가 생각하는 경계에 대해 공유하고 공생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³ 성폭력피해자는 폭력상황을 견디거나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때 획득한 경험을 토대로 다른 상황,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때로는 본인과 상대에게 효과적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착취적인 관계를 지속하거나, 피해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다른 사람과 늘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한 전략이라는 것은 존재하며, 이전에 학습했던 전략은 버리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때도 있다.



함께가는 여성

23호

기회

기억을 걷는 시간

도담(김은지)



한 해의 시간이 흐르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 지하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고 알게 된다. 날마다 오전 6시 10분쯤 2호선 합정과 당산 사이 한강을 건너는데, 겨울에는 해가 뜨기 전이라 사방이 캄캄하다가 4월쯤 되면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하얗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된다. 혹은 혼자 걷는 밤에 불현듯 불어오는 꽃향기로 알게 된다. 이름도 모양도 잘 모르지만 계절보다 먼저 오는 향기들. 또는 매년 돌아오는 어떤 날들을 기억하며 알게 된다. 누구의 생일, 긴 연휴, 크리스마스, 누군가 떠난 날, 한 해 두 해 씬해보며 ‘벌써 몇 주기구나.’ 생각하게 되는 날들.

영 ●여는 민우희 회원
일을 하며 일에 대한 다류엔터를 만든다.



지금이란 각기 다른 질량을 가진 별들 사이에 떠 있는 행성 같아서 때로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이끌려와 주위를 맴돌게 된다.

행운이 라는 건

10

함께가는 여성

23호

기회

일 년이라는 많은 시간

영

11

있었던 것이다. 신호를 기다리며 횡단보도 앞에 선 사람들 여럿이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 그걸 보며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본 다른 이들도 작은 탄성을 내며 사진을 찍게 하는 하늘이었다. 그날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당도한 보신각 앞에 앉아 있으면서는 또 어떤 생각을 했던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혹시나 찾아본 그날 쓴 일기에도 적혀있지 않았다. 아마 그 밤 역시 이 캄캄함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다. 다만 핸드폰에 그날 찍은 사진 몇 장이 증거품처럼 남아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급하게 찍어 구도가 기울어진 하늘 사진, 바닥의 작은 물웅덩이에 고인 노을 사진, “다국적이가씨 항시대기”라고 쓰인 종각역 골목의 대형 홍보물 사진.



너무 많은 죽음이 있었다. 그 죽음들이 도저히 피하지 못할 일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주 무력감을 느꼈다. 분노와 슬픔은 중국엔 무력감이 되곤 했기 때문이다. 모멸과도 같은 무력감이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것은 그러면서도 그럭저럭 살았다는 것이다. 아침에 침수로 사망한 이들의 기사를 읽고 망연해졌다가도 사무실 의자에 앉으면 밀려오는 업무를 쳐내다 이내 잊고 말았다. 그렇게 치워둔 슬픔과 분노와 모멸은 아무렇게나 한데 엉겨있다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이건 진짜 아니야’ 싶을 때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었지만 답을 찾기 전에 생각은 늘 중단되었다. 생각을 하기엔 매일이 너무 피곤했다. 단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할 뿐인데도 집에 돌아오면 그저 누워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많았다. 그러니까 생각의 중단은 자의적이기도 했다. 기분이 유독 가라앉는 날엔 평소보다 더 많이 잠을 자거나 친구를 만났다. 언어를 찾지 못한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기란 어려운 일이어서 그저 가벼운 이야기만 나누다 헤어질 때도 많았다. 다른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영화를 봤다. 어두운 영화관에 앉아 밝고 생생한 세계를 보고 있으면 영화관 밖의 세계는 아득히 멀어지곤 한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갔다.

하지만 이야기는 선별적인 기억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지낸 한해를 서술할 수도 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있던 질문 중 하나는 슬퍼하거나 분노하면서, 혹은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지금 보이는 이 너머를 믿고 나아갈 힘은 어떻게 생길까? 라는 것이었다. 조금이라도 알아낸 바가 있어 여기 적을 수 있다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로서 알 수 없었다. 다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길을 헤매는 동안 필요한 것과 그 너머로 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다를 것 같지는 않다. 그건 시간을 포개어 각자 다른 시간의 구체적이고 고유한 질감을 느끼고, 그리하여 그 시간의 증명이 되어주는 다른 존재다. 그를 나는 친구라 부른다. 나 또한 어느 순간 누군가의 친구일 수 있었기 때문에 헤매는 동안에도 따뜻하다고 느끼곤 했다.

그날은 날씨가 맑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토요일이었고 느지막이 친구를 만나 브런치를 먹었다. 주말의 흥대치고는 골목이 조용했는데 가게에 들어가니 테이블이 가득 차 활기가 넘쳤다. 큰 창으로 오후의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다. 브런치라는 것을 그다지 즐기지는 않지만, 그날따라 어딘가 일상과 조금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즐거웠던 것 같다. 이런 것도 가끔은 괜찮구나, 생각했다. 친구와 꽤 오랜 시간 마주 앉아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회사 얘기, 요즘 본 영화 얘기, 내년, 그러니까 올해가 된 아직은 멀었던 그때 같이 가기로 한 여행 얘기, 그런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억나는 대화는 하나다. 흥대 골목을 걸으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헬러윈에 흥대에 왔다고, 사람 많아지기 전에 빨리 집에 가야겠다고 했고 친구는 저녁에도 근처에서 약속이 있다며 울상을 지었다. 올해 헬러윈은 보통이 아닐 것 같다고, “이태원에 10만 명이 모인대요.” 그런 얘기를 했다.

집에 돌아와 조금 일찍 잠들었다가 연이어 울리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다. 오후에 헤어진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다. 지금 소식을 보고 걱정되어서 연락한다고,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제야 뉴스를 봤다. 아주 많은 속보를 봤다.

그날 밤의 캄캄함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로부터 한 달쯤 전의 일이다. 그날 저녁엔 종로에 있었다. 7시에 보신각에서 열리는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트경 살해에 분노하며’ 집회에 가기 위해서였다. 종로3가에서 종각으로 걸어가며 큰 교차로를 지나는데 마주 보이는 하늘이 온통 붉었다. 높은 건물들 위로 열린 구름이 층층이 깔려 있었는데, 그 넓은 구름이 노랗고 빨간 노을 색으로 선명하게 물들어

민우회에는 트위터 실(시간)트(렌드) 1위에 빛나는 고유의 활동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 매년 봄마다 찾아오는 '성평등 세상을 여는 바자회'인데요! 참여자 모두 즐거운 나눔과 득템의 기쁨을 누리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우회 재정 마련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훈훈한 행사이지요. 이렇게 훌륭한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4년 만에 드디어 열리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열린 만큼 우왕좌왕 우당탕탕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중 몇 가지 인상 깊은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바자회 택배가 아니라고요?

바자회가 시작되면 수십 개의 택배가 매일 민우회 사무실로 쏟아지는데요. 활동가들이 택배를 옮기고, 물품을 종류대로 분류하면서 정리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택배기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다른 집에 배달했어야 할 택배를 민우회로 오배송했다는 연락이었어요. 뭐.라.고.요? 이미 택배란 택배는 싹 다 뜯고 정리해버렸는데... (안 돼~~) 공교롭게도 그 택배 안에는 헌 옷과 쓰던 가방이 들어있었고, 활동가들은 쏟아지는 짐 속에서 당연히 바자회 후원 물품이라 생각했던 거죠. 택배 주인 분은 노발대발하며 당장 옷과 가방을 찾아내라 하였고요. 하아, 이런 황당한 우연이 겹치다니. 어쩔 수 없이 이미 정리한 박스 안을 헤치며 더듬더듬 가방 2개를 찾아냈답니다. 하지만 옷은 결국 찾지 못해 택배기사님과 함께 주인 분께 금전적 배상을 해드렸어요. 하하하. 여러분, 택배를 받을 땐 자기 것이 맞는지 운송장 확인을 잘 해야 해요. 아시죠?ㅠ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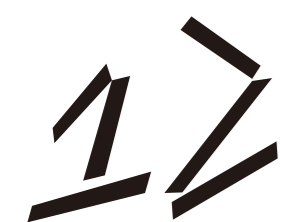
바자회 준비를 할 때 설레는 순간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후원 물품이 사무실에 당도할 때이고요(“택배오~” 하면 활동가 모두가 의자에서 일어나 뛰어나가며 소리쳐요. 진짜로요!) 또 하나는 건물 외벽에 바자회 소식을 알리는 큰 현수막을 다는 때입니다. 위치가 꽤 높아서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3미터 길이의 사다리를 이웃 사무실에서 빌려, 공차공차 옮기고 안전하게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요.(아니, 사다리는 왜 이렇게 크고 무거운 거죠?) 나름 소질이 있다고 자부하는 활동가 중심으로(키가 큰 사람?^^) 사다리에 올라, 조심조심 한 뼘 한 뼘 타카를 박으며 현수막을 벽에 붙여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올라가봤는데요. 우후.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페미니스트가 사다리 하나쯤은 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멋지게 달린 현수막을 보니 왠지 뿌듯하고, 바자회가 어서 빨리 열려 이 현수막 아래에서 질편한 페미 잔치가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이 소식지를 받아 보실 때면 바자회가 잘 마무리 된 상황일 텐데요. 방문하셨던 분은 어떻게, 득템 좀 하셨을까요? 민우회 성평등 세상을 여는 바자회는 (아마도)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올해 못 오신 분들은 내년에 꼭 만나요. 꼭이요!



10
10
10

우당
탕탕
탕탕

민우
회



함께가는 여성

235호



4년 만에 열리는 바자회 준비 우당탕탕

리오 • 여는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바자회가 어서 열렸으면 좋겠어요



일터의 여성들아,,

2023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보신각 광장에서 (2023 여성노동자대회: 세상이 후퇴해도 우리는 앞으로)가 열렸다. 민우회가 함께하고 있는 ‘여성노동연대회의’에서 주최한 이 행사에는 500명에 가까운 여성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시청으로 행진하여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에 합류했다.

행크

3.8 여성의 날에 여성노동자들이 2시간 빨리 모인 이유

때는 민우회 총회를 마치고 한숨 돌리던 2월 초? 활동가 나우가 3·8 세계여성의 날에 ‘여성노동자대회’를 여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물었다. 고민스러웠다. 여성대회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여성대회 본 행사와 별도의 행사를 조직할 수 있을까? 시의성 있는 특정 노동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광장을 채울 만큼 많은 사람을 모으는 집회를 열 수 있을까?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연일 가부장제를 강화하고 철저하게 자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절망적 노동정책 속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너무 절실하지 않나?”는 의견이 마음을 움직였다.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고 다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너무 견고하지도, 너무 허약하지도 않은 유리천장 만들기?

분주하게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는 듯했다. 장소를 정하고 발언자를 섭외하고 집회 제목을 정하고 또 홍보물을 만들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 있었으니! 다음 아닌 ‘유리천장’ 부수기 퍼포먼스 준비! ‘유리천장’은 여성이 사회생활에서 성장하는 데에는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용어다. 2023년 한국이 ‘유리천장지수’ 11년째 꼴찌라는 사실은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우리를 놀래키지도 못한다. ‘유리천장지수’는 매년 3월 8일 발표되는데 ▷관리직 내 여성 비율 ▷성별 간 경제활동 참여율 ▷성별 간 임금 차이 등의 10가지 지표를 가중평균해 결과를 산출한다. 이는 개별지표로는 알 수 없는 여성 사회진출의 한계를 직관적이고 정밀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는 집회 마지막, 퍼포먼스를 통해 여성노동자를 짓누르는 유리천장의 존재를 시각화하기로 했다. 반투명한 하늘색 쉬폰 천을 일일이 이어 붙이기로 했다. 노동자대회 전날 활동가들은 자그마한 사무실에 모여, 광장의 규모를 상상하며 바느질을 시작했다. 실 새 없이 바늘을 움직이는 일보다 더 우리를 곤란에 빠뜨린 것은 ‘유리천장’의 강도를 조절하는 일이었다. 현실의 견고한 유리천장을 생각했을 때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강해서 찢어지지 않으면 (현실 천장도 안 깨지는 판에) 너무 절망스러울까 우려가 됐다. 부수고 싶지만 한 ‘유리천장’을 ‘적당히 튼튼하게’ 제작해야 한다면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천이 찢어진다고 현실의 유리천장이 부서질 수 있을까?

드디어 여성노동자대회 당일.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어느새 광장은 빠르게 채워져 나갔다. 각자 자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주옥같은 발언이 이어지고 집회의 열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 드디어 퍼포먼스 타임!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준비했던 큰 천을 참여자들이 직접 머리 위로 주욱 펼쳐나갔다. 사무실에서는 크게만 보였던 천이 수많은 참가자들 사이 너무 작아 보였지만 머리 위로 펼쳐 든 모습이 제법 유리천장 같았다. ‘부수주세요!’라는 구호가 떨어지자, 참가자들은 유리천장을 힘주어 찢기 시작했다. 다행히 유리천장은 힘을 건뚫 주어야 찢겨나가는 적당한 강도로 제작이 됐고 참가자들은 너도나도 머리 위의 천을 함께 찢으며 꽤 즐거운 웃음을 보였다. 퍼포먼스의 순간들은 비장한 사진으로 남아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현실에 단단하게 존재하는 ‘유리천장’을 천으로 재현해서 찢는 퍼포먼스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 여성노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발언을 듣고 행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집회가 있을 때마다 고민되는 부분이다. 정답은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광장에 모여 각자의 투쟁 현장, 어떤 차별과 어떤 부조리를 헤쳐나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싸움을 지속하는지 서로의 투쟁을 들여다보고 의미를 읽어주는 일은 외로운 투쟁에 힘을 준다. 또 너무 견고할 것만 같은 유리천장, 여성노동자들을 속박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천장을 가시화하여 시원하게 뜯어 갈겨보는 일. 그리고 즐겁게 천장을 찢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 이런 시간들은 지속할 수 없을 것만 같던 투쟁에 제법 따뜻한 웃음과 희망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집회가 끝나고 3월 6일, 정부는 69시간 노동제를 발표했다. 작년 대선 때 주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던 풍경을 생각하면, 세상이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연일 노동조합 압수수색 소식이 들리고, 외국인 기사도우미의 임금을 ‘후려치는’ 법안이 버젓이 발의되기도 했다.

추진한다면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요원하고, 여성노동
늘리는

정책에선 성평등이 삭제되고 육아휴직을 것으로만 축소되고 있다. 우리는 또다시 이 팍팍한 현실에서 투쟁을 지속하고, 각자의 공간에서 투쟁하는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 광장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연결되고 연대하고 또 현실과 싸워나가는 방식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광장에 모여 볼까?

여성노동팀

세상이 후퇴해도

1사

함께가는 여성

3.8호



성평등네트워크팀

노동하고, 돌보고, 일상을 유지하는 데에만 온 힘과 마음을 쓰게 되는 삶의 굴레(?) 속에서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일상의 준거점으로 삼으려면 우리 삶의 모양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일과 일 바깥을 결정하는 자본, 그리고 이들의 편에선 정부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소수자들의 연대와 페미니스트 모임을 여는 성평등네트워크팀 사업 ‘지구인 페미니스트 클럽’의 시작을 알립니다.

해파리

삶의 굴레(?) 속

기후 위기의 무게

삶의 굴레(?) 속에서 기후위기의 무게

노동하고, 돌보고, 일상을 유지하는 데에만 온 힘과 마음을 쓰게 되는 삶의 굴레(?) 속에서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일상의 준거점으로 삼기는 쉽지 않다는 트윗¹을 보면 상념에 빠졌다. 알람 소리에 겨우 깨어나 분주하게 출근하고, 노동하고, 지하실 퇴근 행렬에 떠밀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내일 출근 준비를 마치고 하루는 끝이 난다. 노동하고, 돌봄하는 하루에 기후위기의 무게를 나눌 틈이란 없다.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하거나, 육식을 하거나, 잘 쓰지도 않을 상품을 소비하며 기후위기에 한몫했다는 죄책감으로 미끄러진다.

함께 살기 위해 멈춰!

4월 14일, 세종정부청사 앞에 일터와 일상을 멈추고 4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함께 살기 위해 멈춰!,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 멈춰!, 사회 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고요한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으로 향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쳤다. 수많은 깃발이 시민들을 감싸고, 북소리가 등등 울렸다. ‘함께 살기 위해 독박 돌봄 멈춰!’, ‘여성해방 없이 기후정의 없다’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민우회 활동가 수달과 함께 행진 대열에 합류했다.

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한 시민들은 말한다. 이윤을 위해 착취와 수탈을 멈추지 않는 자본의 폭력으로 노동자의 권리, 사회의 돌봄과 연대의 역할은 파괴되었으며 값싼 원자재를 생산하기 위해 자본은 끊임없이 생태를 학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계의 재생과 순환 또한 파괴되고 있다. 여성에게 사회적 재생산 책임이 전가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강화된다. 이를 멈추지 못하면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돌봄 위기,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²

소수자와 페미니스트가 만드는 기후정의

기후위기를 주제로 사업을 해야 한다면 도무지 풀 수 없는, 답 없어 보이는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사람이 된 것만 같은 마음이지만 더듬더듬 길을 찾아보기로 했다. 팀원들과 책 ‘기후정의’, ‘좌파의 길: 식민주의에 반대한다’를 읽고 발제하며 기후위기, 자본주의, 불평등의 연결고리를 공부했다. 우리가 자연과 맺는 관계, 지구의 운명과 맺는 관계,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해소하고 충족할지, 우리의 일과 일 바깥의 삶이 어떤 모양을 띠지 결정하는 것은³ 우리가 아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결정할 수 없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플라스틱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개인의 책임의식에서 나아가 기후위기의 원인을 적시하고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에 대항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여성의 돌봄 노동에 의존해 이윤을 축적해온 자본의 방식을 거부하고, 사회적 재생산을 우리 삶에 새롭게 위치 짓는 사회, 자본의 이윤에 따라 자연과 비인간 동물이 착취당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려 한다.

성평등네트워크팀은 올해 ‘지구인 페미니스트 클럽’을 기획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소수자들의 연대를 만들고, 이들과 함께 기후정의 공동행동을 열 예정이다. 청소년, 동물권, 빈곤, 이주민, 난민 등 다양한 의제로 활동하는 소수자 운동 단체와 서로의 교차점을 찾아 실현적인 방식의 기후정의 액션을 탐색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자가 체제 전환의 주체로 등장하는 기후정의 사회의 스케치를 그려보려 한다. 또한 ‘뭐라도 하는 페미니스트 클럽’으로 모인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기후정의의 위한 액션을 펼칠 예정이다. 전 지구적인 변화 없이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에 무기력해지기도 우울함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의미 있다고 믿는다.

¹ 오찬호. “일하는 시간 줄이지 않으면 기후 위기 해결 못해요. 바쁘고 힘들면, 삶 안에 '기후'라는 단어를 무게감 있게 준거점으로 설정할 수 없어요. 플라스틱 안 쓰는 캠페인보다, 여유롭게 휴식하고 장보고 요리하고 뒷정리하고 영 데릴 수 있는 시간을 개인이 가지면 별다른 질서 없이도 쓰레기가 줄지요.” 2022.12.21.14:00. Twitter. ² “함께 살기 위해 멈춰! 414 기후정의파업” 참가자 일문. 함께 살기 위해 멈춰! 414 기후정의파업 선언. ³ 낸시 프라이저(저자), 최희의 길: 식민주의자에 반대한다. 장석준(출판인), 서해문집, 2023. 276



여성노동팀 | 성평등네트워크팀

행크 ● 여는 민우회 여성노동팀. 아픔이 너무 많네요

행크 해파리

해파리 ● 여는 민우회 회원! 성평등네트워크팀 아치가 무너진 사람

1사



미디어 1년차, 2년차, 3년차, 14년차(?)로 구성된 성평등미디어팀은 오늘도 많이 많다. 활동 방향과 취향을 소개함으로써 성평등미디어팀을 소개할 기회가 되고, 미디어 운동의 흐름을 소개할 수 있다. 미디어 운동의 흐름을 소개할 기회가 되고, 미디어 운동의 흐름을 소개할 수 있다.

미디어 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고민했던 건에 관하여



성평등미디어팀은 요즘 가장 시끄러운 팀이다. 이야기 나눌 주제가 많기보다 그냥 말이 많다. 팀에서 누군가 “이런 주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한마디를 던지면 콧캐스트 한편이 완성된다. 2023년 올해 미디어팀은 미디어 이슈 1년차, 2년차, 3년차, 14년차(?)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주제는 사소한 의견차이가 있고,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말이 많아졌다. 이런 차이를 가진 채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지만 누군가가 민우회의 입장을 물어볼 때 ‘모두 의견이 달라서요’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콧캐스트’처럼 이야기하고 팀 세미나를 한다. 이 글의 다음은 미디어팀이 모여 논의하고 세미나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짧은 단락안에 넣은 것으로 결과는 없고 질문과 과정만 있어 다소 맥이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고민이 없으면 결론도 없다.

2022년 작년 말. 새롭게 팀이 구성되고 앞으로의 미디어 활동 방향성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그 전에는 뭘했어?’ 라는 질문이 나왔다. 그래서 첫 번째 세미나 주제는 ‘민우회 미디어운동의 역사’가 되었다. 물론 지루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과거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주기도 하지 않는가? 확인화된 미의 기준을 제시했던 미스코리아 대회 중계 방송을 MBC에서 퇴출시켰고(1996), 의료광고가 불법임에도 성형수술을 대놓고 광고했던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팹미인을 폐지했다(2015), 성차별적 방송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방송심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2004), 새로운 기술에도 페미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페미니스트와 함께 만드는 AI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2021). 성평등 미디어 리더로서 교육도 꾸준히 해왔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민우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보자.) 팀 안에선 ‘몇십 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구나’ 이런 한탄부터 ‘과거의 활동이 있었기에 오늘날 미디어 환경이 나은 방향으로 변화했구나’ 같이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한 번의 세미나 가지고는 운동의 방향성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하기도 했고, 세상에는 ‘내가 더 중요해!’ 라고 외쳐대는 이슈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더 중요해!’(라고 주장하는 이슈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런 물음 속에서 세미나는 이어졌다. 다음 주제는 ‘공영방송’과 ‘방송법’이었는데 최근 대통령실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¹를 추진하고 있어 연결하여 고민을 나누게 되었다. 전기요금에 통합되어 징수되는 KBS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게 되면 지금보다 적은 수신료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일까?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최대 가치가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없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든 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수자를 적극 대변하는 것이라면 사실 공영방송은 공적 인프라에 가깝다. 대통령실의 말대로 분리징수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분리징수는 공적 인프라(공영방송) 강화와 연결된다는 걸까? 한편에서 수신료를 위탁징수하기 전 낮은 징수율을 본다면 분리징수의 미래는 공영방송 역할 강화보다는 공영방송 상업화일 가능성이 크다. 팀 안에선 대통령실이 말한 이익을 가져가는 ‘국민’은 누구인지, ‘우리’가 맞는지 고민하고 이야기 나왔다. 나아가 ‘공영방송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는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그 해결책이 분리징수인가에도 부단히 의견을 나눴다.

지금까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올해 1분기까지의 나는 이야기를 짧은 지면에 꼭꼭 눌러 담아 왔다. 풀어나지 못한 이야기들도 많다. 그 과정에서 팀원들과 깨달은 바는 많지만 일일이 말한다면 이번 소식지가 ‘함께 가는 미디어’가 될 수 있으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겠다. 다만 확실한 건 사건을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정치와 권력의 은밀한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거침없이 논의를 확장하는 용기도 생겼다. 이제 미디어팀은 지난 논의를 역량삼아 활동으로 풀어내는 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있다. 미디어 관련 기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평등 미디어 리더로서² 교육자를 위한 안내서개발도 기획하고 있다. 여전히 말도 많다. 쏟아지는 이슈와 멈추지 않는 변화 속에서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은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상상해보고 고민한다.

¹ 현재티브이 수신료는 한국전력에서 위탁징수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된다. ² 성평등한 관점으로 미디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성폭력상담소

이해는 어찌든 피해어찌든

강간죄, 개정 어디까지 왔을까

지난 1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은 개인 SNS를 통해 법안 개정이 국가의 과도한 사생활 개입이며, 무고¹ 가능성이 높다고, 남녀 갈등을 부추킨다고 반발했다. 여가부와 관련 부처인 법무부는 개정 입장을 돌연 철회²했다.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강간죄 개정 시 “역할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차 반박했다. 주요 근거로 한국은 성폭력 사건 처벌률이 90%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 10명 중 9명이 처벌되는 셈인데, 사실일까? 거꾸로(?) 맞다. 10명 중 9명이 신고 되지 않는다. 여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범죄는 신고율이 2013년 1.1%, 2016년 2.2%, 2019년 1.7%로 전형적인 암수범죄³다. 신고 된 가해자 중 실제 기소는⁴ 42.9%(2022 범죄분석, 대검찰청)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처벌률 90%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을까? 바로 기소된 가해자들이다. 정리하자면 성범죄 신고율은 3% 미만, 신고 후 절반 이상이 무혐의(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등)처분, 나머지 절반 좀 안 되는 가해자들 90%가 처벌받는다. 참고로 성범죄에 대한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가 39.1%로 다른 형사 사건보다 높다.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것들

사석에서 내가 반성폭력 활동가라고 하면, ‘가짜로’, ‘다른 의도’로 신고하는 사람이 없냐고 묻는 이들이 (놀랍게도) 가끔 있다. 그럼 나는, “일단 저는 본격 없어서 모르겠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많은 가해자들이 신고 전·후에 무고죄를 피해자 협박 수단으로 쓰더라고요. 공유하는 매뉴얼이 있나 봐요?” 라고 답한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상담에 앞서 무고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한다. 특히 폭행·협박 없는 사건일수록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 자체를 망설인다.

‘가해자와 이 전에 사귀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충분히 저항할 수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인이라고 판단해서’ 등등의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되거나 송치⁵되더라도 변분이 불기소 처리된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적인 절차를 통한 사건 해결을 또 한번 망설이게 된다.

강간죄 개정 없이 정의로운 사회는 요원하다

UN이(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⁶에서 제시하는 국제 기준은, ‘모든 신체 삽입 행위를 강간으로 포섭하는 것’,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행력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기준을 넘어 주변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피해자가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 동의가 없는 경우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이미 많은 국가들이 국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2016년 독일 형법은 “거절은 거절이다(no means no)” 원칙을 반영하여 강간 조항을 개정했으며, 강간을 피해자의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행위로 정의했다. 스웨덴은 “동의해야 동의다(yes means yes)” 원칙을 반영하여 강간 정의를 바꿨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 또는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성관계에 필적하는 그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된다. 2019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사례 중 71.4%가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사건이었다. 이미 많은 여성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대의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지한다.

우리는 법을 바꿀 것이다. 우리가 바꾼다. 민우회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이하 강간죄개정연대) 활동을 통해 강간죄가 동의/비동의로 재정의 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다.

¹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질사나 검찰청 등의 공무수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할, 무고죄는 해당 혐의로 성립되는 범의를 알지(형법 제156조). ²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의 간섭적 개입 검토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민우회). ³ 동 과정은 2015년 1차 양성평등기본계획부터 포함되어 논의되어 온 과제로서 논의될 단계에서 새로이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문제가 아님을 알려드린다.(여성가족부) ⁴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어도 용의자 신원 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익적 범죄의 용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⁵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심판을 구하는 행위. 한국은 검찰만 기소권(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음. ⁶ 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 주로 형사 소송 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송치한다고 표현함. ⁷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에서 번역한 해당 보고서는 여성에 대한 원대기반폭력으로서 강간에 초점을 두고, 특히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국제형사재판 관에 중점 기초조 국내에 적용 가능한 형사법모형을 제시함.

지난 1월, 여성가족부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가 돌연 철회하였습니다. 2019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사례 중 71.4%가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사건입니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현재 강간죄로 인해 여전히 가해자 처벌은 어렵고,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화를 위한 싸움을 지속합니다.

폭행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묻다

전진TF팀이 만난 유선열에 화난 시민들

전진

UP&DOWN 요동치는 나라, 우리는 새 판을 기획하지!

TF팀



함께가는 여성

23호



전진TF팀 민우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퇴행과 반동의 정치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결성했습니다. 올해 TF팀에서는 윤 정부에서 올라간 것과 내려간 것(UP&DOWN)을 정리하며 윤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짚어보는 격주간 리포트를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 페미니스트가 주기적으로 함께 만나고 공리하는 월간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회가 더 나빠져 있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두려워하며 뉴스 창을 여는 일이 매일의 일과였다. 역할과 책임에는 지극히 무능하고 방만한 현 정부가, 성평등과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뒤흔치는 일에는 어찌나 재빠르고 교활한지. 밥(과 술) 먹고 사회를 퇴보시키는 것이 주 업무인 정부가 출범한 이상, 이런 정부를 감시하고 대응하기가 전담 업무인 조직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은 나쁜이 아니었다. 올해 민우회는 정치 현안대응을 위한 TF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이하 전진)'팀을 새로 꾸렸다.

분노와 무력감 UP, 믿음과 기대 DOWN
지금 윤 정부 시대를 살아가는 페미니스트 시민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전진팀은 그 가운데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여섯 활동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했다. 상황에 대한 진단은 대체로 비슷했다. 삶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한꺼번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반동의 정치에 시민들은 질려버린 것만 같다고.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분노하는 와중에, 주 69시간제 시행 논의가 튀어나와 경악하는 식의 경험이 반복되니 당연한 일이었다. 일일이 따라갈 수조차 없는 퇴행, 그에 따른 거듭된 분노와 슬픔은 사람들을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게다가 사회에 만연한 반페미니즘 정서는, 정부를 비판한다는 자리에조차 페미니스트로서 나가기를 주저하게 하고 있다.

우리 지금 만나! 매달 만나!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할 일은, 페미니스트로서 새 판을 기획하는 일이 아닐까? 정부의 퇴행에 끌려다니기보다 페미니즘 관점으로 먼저 의제를 제시하고, 페미니스트가 안심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를 전진팀 활동의 목적으로 세웠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망국정치 UP&DOWN 리포트'를 격주로 내보내고, '윤석열 정부 망국정치 UP&DOWN 토크쇼'를 달마다

진행하기로 했다. 리포트에서는 윤석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올라간 것과 내려간 것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정책의 문제점과 부정적 영향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내고, 윤 정부 정책이 가져온 구체적인 일상의 문제 사례를 시민 제보로 받아 널리 알리고자 했다. 토크쇼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연구자/활동가를 패널로 섭외하여, 참여자들과 함께 윤 정부 정책을 페미니즘 관점으로 비평하고 대항 전략을 함께 세워볼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이 매달 만나서 신나게 떠들다 보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를까? 벌써 기대가 된다. 절망을 이기는 것은 연결과 웃음이라고 믿는다.

한 줄기씩 흐름을 모아 독을 무너뜨릴 도도한 격류로
전진팀은 계속 윤석열정부의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매일 상식을 파괴하고 예측조차 불가능한 악의를 보이는 윤 정부의 정책에서 한 가지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태도다. 윤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젠더 문제를 남성 개인들과 여성 개인들의 경쟁과 대립으로 치부한다.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니,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 있을 리도 없다. 게다가 모든 개인이 사회에서 각자도생해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더 나은 노동환경, 사회안전망, 돌봄, 안전을 위해 국가의 자원을 투여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 고용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가 축소된 가운데, 노동조합으로 뭉쳐 권익을 주장하기도 어려워졌다. 소득·주거지원과 공격 돌봄을 위한 체계는 사라지고,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이렇듯 시민을 바쁘고 지치고 무력한 개인으로 쪼개놓으려는 정치에 대항할 방법은, 순순히 쪼개지지 않는 것이리라. 민우회의 창립 선언문에 이런 구절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 대중의 거대한 저력을 믿는다. 물이 스미듯 천천히 소리 없이 흘러가 마침내는 도도한 격류가 되어 온갖 것을 휩쓸어 버리는 대하를 믿기에 우리는 여기에 하나로 모인 것이다." 반동에 압도되지 않고, 주마다 차곡차곡 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달마다 함께 만나 성토했고 공리하고 작당하다 보면, 언젠가 반동을 되받아쳐 무너뜨릴 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여는 민우회 전진TF팀

온다



온다 ● 여는 민우회 전진TF팀. 백래시 정부가 온다. 죽일 수는 없으니 아껴주세요. 활 일을 배우고 온다

